

자선에서 연대로, 동정에서 공감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의 사례연구

안효미* · 남기범**

From Charity to Solidarity, Sympathy to Empathy: The Case of Yellow Envelope Campaign

Hyomi Ahn* · Keebom Nahm**

요약 :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으로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사회는 기부참여율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가 동정심에 기반한 자선적 기부에 집중되면서 공동체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는 상당히 취약한 편이다. 본 연구는 2014년 '노란봉투 캠페인'을 중심으로 기부행위가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 확장되는 현상의 변화동인과 속성을 분석한다. 기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내면화하면서 해고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로 인식하고 있으며, 같은 노동자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동질감(소속감)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와줄 이웃이 있다는 호혜와 신뢰를 형성했다. 경제적 빈곤보다는 개인들이 파편화, 고립화로 인해 정서적 빈곤을 겪는 현대사회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기부도 필요하지 않, 정서적 공감과 연대로서의 기부가 확장되는 현상은 우리사회 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주요어 : 기부, 연대, 공감, 노란봉투 캠페인, 네트워크

Abstract : Giving behavior promotes social solidarity and lessens social deprivations by voluntary practices to make better communities. Despite the increasing trend of giving in terms of participation and amount in Korean society, the giving culture has deeply rooted in charitable emotion based on compassion, still far from social solidarity.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giving behavior by investigating its characteristics and changes in its motives from the compassion-based social welfare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 solidarity, centering around 'Yellow envelope campaign' started in 2014 to support the living expenses and cost of litigation for the fired workers of Ssangyong Motors. By employing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it analyzes the horizontal relationships, reciprocal responsibility, social capital, and pursuit for conflict solution. Even though the campaign didn't change our society as a whole, but it cast the social questions on the birth of social empathy and solidarity.

Key Words : giving, solidarity, empathy, Yellow envelope campaign, network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7374).

* 아름다운재단 협력사업팀 간사(Manager, Division of Marketing, The Beautiful Foundation, hyomian27@gmail.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nahm@uos.ac.kr), 교신 저자

1. 서론

기부는 자신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의를 확장하는 것으로(Payton, 1989) 기부자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수단이자 시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며 신뢰, 소속감,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정정호·김미희·이상철·안효금, 2007). 자선(charity)은 주로 종교적 의무로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애를 베푸는 것을 말하고, 박애(philanthropy)는 시민으로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development aid)을 의미한다. ‘자선적 기부’와 ‘박애적 기부’속의 사회적 관계와 행위의 의미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기존의 물질 자원 유형이나, 자선적인 의미로 기부행위를 바라보면, 특별히 불행과 재난과 재해로 인해 가난하거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깝게 여겨 도와주는 시혜로만 접근하거나 가진 자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만을 강요하게 된다.

한국사회의 기부문화는 ARS기부와 같은 일회성의 자선, 그리고 이웃돕기 모금의 70%가 연말연시에 집중되는 등 특정한 사건이나 시기에만 참여하는 이벤트성이며(예종석, 2010; 이현우 외, 2011) 기부동기의 대부분은 동정심(63.5%), 비정기적(61.9%)으로 이뤄지는 등(아름다운재단, 2014) 공동체의 연대와 공존을 목적으로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기부동기를 보면 동정심 외에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사회적 환원, 사회적 인정욕구, 자아성취, 관계적 측면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Ostrower, 1995) 우리나라의 경우 동정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기부문화가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의 연대가 아닌, 대량상품으로 공급되고 있는 자선상품 교환시장에서의 도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

상을 찾아 돈을 내는 행위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있다(김형용, 2013).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돈’이 아닌 헌혈, 장애인 부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부문화가 확산 중이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기부, 아이스버킷챌린지와 같이 사회관계망을 통한 기부 등 방식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의 기부동기 및 분야도 동정심, 사회복지(자선사업)에서 공동체 의식, 사회변화(운동)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음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2~5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해고노동자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¹⁾에서는 기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에서 보여줬던 ‘동정심 기반’, ‘사회복지분야’의 시혜적인 기부가 아닌, 기부자들이 ‘같은 노동자로서’, ‘연대하자’, ‘미안하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며 참여하는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 자원 유형이나 자선적 의미가 아닌 사회문제와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수단이자 시민의식을 표현할 수 있는 행위로 바라보고 시민참여로서,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의 관점으로 기부행위의 변화동인과 속성을 분석한다.

2. 기부, 연대, 공감의 분석

1) 기부의 개념과 동기

기부 동기는 ‘인간이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내부(심리적)에서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동기가 발생하는 내적 동기와 외부(환경적)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기부를 하려는 동기가 발생하는 외적 동기로 구분된다(장은영, 2009). 스스로 동기부여에 의한 내적 동기는 주로 동정심과 이타심, 기부를 통해 돌아오는 심리적 행

복감, 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책임감, 종교적 신념, 가족 전통, 기타 내적 이유 등으로 조사된다. 외적 동기는 경제적 여유, 경제적 혜택,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 특별한 이유 없이 요청을 받는 경우, 주변적 상황 때문, 기타 외적 이유 등 외부에서 주어진 자극과 보상에 의해 기부동기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1).

사람들의 인식은 각기 다른 욕구, 문화적 배경, 과거의 경험, 동기 등에 의해 서로 다른 지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기부행위에 있어서 개인기부자들이 서로 다른 역량과 내·외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지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Sargent, 1999).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적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보다 추상적이고 탈물질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김욱, 2010). 프랑스에서 1979~19991년 사이에 태어난, 소위 Y세대라고 일컫는 젊은 세대는 기부를 자선(charity)이나 공유(sharing)와 연대(solidarity)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죄책감이나 사회적 의무로서의 기부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즐겁고 효율적인 기부를 선호한다(Urbain *et al.*, 2013).

하지만 국내의 기부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와 서울서베이, 사회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기부인식을 파악하고 있다. 주로 사회환경의 변화나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등의 요인에 따른 세부적인 개인기부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강철희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인식과 동기가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의 시작점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캠페인 기부참여자의 특성, 기부목적의 변화동기,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의 기부특성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대의 개념과 의미 변화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분열, 고립과 대립된다(강수택, 2006a). 또한 연대는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 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이다(강수택, 2006b). 공동체가 붕괴되고 개인주의가 보편화된 근대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통합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들에게 연대는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는 개념이 되었다. 연대개념은 19세기 중후반 활발했던 노동운동의 역사적 흔적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의 노동자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연대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핵심적인 무기였다. 이들에게 연대는 투쟁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달성해야 할 이상사회의 원리이기도 하였다(서유석, 2010). 20세기 후반 등장한 복지 국가 또한 연대 개념 형성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계기이다. 이때 연대는 ‘형제애’ 개념에 기초하여 물질적으로 궁핍한 개인과 집단을 위해서 재원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서유석, 2010).

줄(Zoll)은 뒤르켐의 유기적 연대개념을 현대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관계의 변화, 특히 사회적 결속방식의 변화에 대해 주목하며 연대의 개인화, 다원화, 일상화 등을 강조했다(Zoll, 2008). 다원화되고 갈등하는 현대 시민사회의 특징에 부합하는 연대를 ‘시민적 연대’로 개념화 하고 시민적 연대의 중요한 특성으로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성찰적 연대, 타인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을 전제로 하는 연대, 열린 연대, 갈등 내재적이며 갈등에 유연한 연대이며, 이러한 시민적 연대의 조건으로서는 타자에 관한 관심과 도덕적 책임의식, 상호신뢰관계, 의사소통, 시민적 참여, 시민문화이다(강수택, 2006a).

동질 집단의 연대인 기계적 연대에서 진화하여

타자와의 열린 연대 즉 시민적 혹은 사회적 연대로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해야 하며 타인에 관한 관심과 도덕적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가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성한다. 연대는 타인이나 타 집단에 물질적 도움이나 상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행동으로 원칙적으로 상호성을 기초하고 있어서 행위자와 수혜자 사이의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로 성립되는 '자선적 기부'와 구별되며, 연대 관계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동등하게 가치가 존중되는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다.

3) 공감과 진화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처지라는 외부 자극

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상대방의 입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능동적 행동이다. 공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상대 감정 및 행위의 모방, 해석이 아니라 타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지 추측하고, 이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Stewart, 1995). 공감은 단순히 느껴지는 감정, 인식이 아닌 태도나 행동을 불러오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감은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갈(Segal, et al., 2012)은 사회적 공감을 '제도화된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나 인종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기부의 동기과 특성이 동정심 기반의

표 1. 설문 문항 구성

구분	분석내용	측정 항목
기부목적의 변화이유	연대활동 참여 여부 및 선호형태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 경험여부 노란봉투 캠페인 외 관련 활동 분야 - 캠페인, 서명/기부 또는 회원가입/집회참여/노조활동
	기존 연대활동의 방해요소	노란봉투 캠페인 전 관련 활동 참여하지 않는 이유
사회적 연대 성격	기부참여 영향요인	노란봉투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심리적요인 - 사회적 책임감/종교적 신념/동정심/공감/연대의식/죄책감
		노란봉투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사회경제적요인 - 경제적 상황/세금혜택/대중매체/모범적기부자/지인권유/이슈자체
	수평적관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 공감/연대의식 중심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관점 -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 / 호혜적 관계 / 함께 연대하는 동료
	공동의 책임감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사회적 책임감, 죄책감 중심
	사회적자본 형성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하며 기대한 바 - 사회적 안전망, 신뢰, 공동체의식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순위) -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사회적 안전망		
갈등해결 지향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식 - 정부주도/이해당사자간 해결/사회구성원 참여해결/회피	

자선적 행위에서 공동체 의식 기반의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특성을 분석한다.

3. 노란봉투 캠페인의 배경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노란봉투 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부행위의 연대적 성격과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 중 임의로 3,500명을 선별하여, 2015년 9월 7일-10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341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기부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변화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해고노동자와 관련된 활동여부와 분야를 물어 선호하는 유형과 기존의 연대활동 참여에 방해되는 요소를 파악하였다.

설문응답자는 341명으로 남성 158명, 여성이 183명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 144명, 30대 129명, 50대 이상 43명, 20대 이하 25명 순으로 30~40대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1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126명으로 2번째로 많았다. 계층(경제적 수준)은 중위 계층 258명, 하위계층 55명, 상위층 28명으로 주로 중위계층에 속해 있었다. 정치성향은 진보가 212명, 중도 123명, 보수 6명이었다. 이는 설문에 주로

표 2.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구분	항목	N	%	구분	항목	N	%
성별	남	158	46.3	교육 수준	전문대 이하	31	9.1
	여	183	53.7		4년제졸	184	54.0
연령대	20대 이하	25	7.3		대학원재학 이상	126	37.0
	30대	129	37.8	계층	상	28	8.2
	40대	144	42.2		중	258	75.7
	50대 이상	43	12.6		하	55	15.1
거주지	서울	153	45.0	정치 성향	진보	212	62.2
	광역시	51	15.0		중도	123	36.1
	시군구	132	38.0		보수	6	1.8
	해외	4	1.2	N=341(거주지의 경우, N=340)			

표 3. 심층인터뷰 참여자 기초정보

구분	이름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모집
기부자	A	여	40대	시군구	대학졸	페이스북
	B	여	40대	서울	대학원 재	페이스북
	C	여	30대	서울	대학원 재	직접 요청
	D	여	30대	시군구	대학원 수료	네이버 카페
	E	남	30대	서울	대학원 재	직접 요청
	F	여	40대	서울	대학졸	네이버 카페

응답한 사람들은 30~40대, 4년제 이상의 고학력, 중위계층, 진보성향으로 비교적 동질집단임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와 함께 기부자들이 참여하며 남긴 온라인 소셜 댓글과 편지를 수집하고,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심층인터뷰와 기부자들의 문서(소셜 댓글, 편지)는 설문조사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심층인터뷰는 기부자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 사회 대부분의 모금캠페인이 사회복지, 특히 '빈곤'의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인한 월급가압류라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기부자들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 47억원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 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했다. 노란봉투에는 기부금뿐만 아니라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자신의 경험이나 '미안하다', '연대하자'와 같은 편지를 함께 넣어 보내는 등 기존의 기부 행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차별적인 특징이 있다.

1) 시민의 제안

<노란봉투 캠페인>은 2013년 12월 말, 언론사 시사에 경기도 용인에 사는 한 시민인 배춘환씨가 해고노동자에게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며, 이를 시민들의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해고 노동자에게 47억원을 손해배상 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만7천원씩 10만명이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9만9999명분은 제

가 또 틈틈이 보내드리든가 다른 9만9999명이 제시길 희망할 뿐입니다. 이자가 한 시간에 10만 7000원이라고 하니, 참 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시작이 반이라고...- 시사에 보내온 배춘환씨의 편지

배춘환씨가 '4만7천원씩 10만명'이라는 십시일반을 제안한 것은 해고노동자에게 단순히 기부를 하는 행위와는 달랐다. 배춘환씨는 자신이 보낸 4만7천원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조리함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밝힌다.

저는 47억을 그 사람들에게 줄 순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집요하게 4만7천원씩 꾸준히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예 모금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모금단체에 보내고 그러지 않았던 거죠. 기부라고 생각 안 하고 화의 표현이었어요... 4만7천원... 이 사실에 너무 화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상징적 표현이었지. - 배춘환

단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4억7천만원을 모아서 주자고 했다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기부와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4만7천원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노동자의 파업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그 불만의 표출을 시민이 했다는 점에서 자선적 기부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

2)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라는 특정한 대상의 생계의 어려움을 강조하기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각시키는 메시지

로 구성되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월급봉투에서 착안한 ‘노란봉투’ 이미지를 캠페인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해고노동자의 문제를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모금캠페인을 구성했다. 노란봉투는 1,422통, 기부금은 총 64,160,000원이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모금 목표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이었으나, 후반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선을 목표로 진행되며 기부를 통한 사회참여, 사회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노란봉투 캠페인>의 모금은 비영리단체인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아, 손에 손을 잡고!)’를 통해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사용되면서 실제로 기부를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따라서 <노란봉투 캠페인>은 한 시민이 손배소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며 십시일반을 제안하며 시작됐고, 이를 아름다운재단에서 ‘월급봉투’에서 착안하여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자기의 일, 모두의 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여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것에서 그 시작과 캠페인 구성 자체에서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부목적의 변화

1) 사회적 연대의식과 계급의식

연대는 역설적으로 개인화로 인한 불안정성에서

기인한다. 불안정성은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한다.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하다고 보고 있으며, 불안한 상황은 언젠가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개인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 이유를 밝혔다.

우리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고용불안정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지표들만 보더라도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쌍차²⁾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안 그러면 나 몰라라 모른 척하고 있고 내일 아니니깐 그렇게 있으면... 언젠가 그게 내 일이 될 수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 일이 될 수 있는 건데... 닥쳤을 때만 싸울거냐...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아님 세상이 어떻게 더 좋아지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 기부자 A

신자유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험은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과 함께 계급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기부자들은 기업과 자본은 ‘막강한 강자’이며, 그 밖에서 있는 자신과 해고노동자들을 ‘약한 집단’을 표현하며 계급의식을 느낀다.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기업과 그들의 편에서 있다고 생각되는 법제도에 대해 반감을 표현한다. 이는 불안함과 위기의식의 표현이면서 해고노동자들의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며 동질적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찌 됐든 약한 집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막강하잖아요. 법이라던가 자본이라던가. 그런 사람

들을 보호하지 않는 세상에서 셋째를 키우기가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난 애한테 뭐라고 말하면서 키워야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 기부자 F

47억인가. 소송비용이. 그거를 선고받았을 때도 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우리나라 사법부 진짜... 너무 강자 입장에서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 기부자 A

위기의식과 자본과 기업에 대한 반감정은 스스로를 해고노동자와 동질한 계급, 약한 집단으로 규정하게 하고, 함께 맞서서 해결하기 위해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2) 새로운 유형의 연대의 필요성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기의식과 불안으로 연대와 공동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연대'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르다. <노란봉투 캠페인> 외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341명 중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147명(43.1%),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이 194명(56.9%)으로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해고노동자 문제 관련 활동 참여하는 것에 심리적·물리적 장벽이 있었던 것에 반해 <노란봉투 캠페인>은 기존의 관련 활동 참여에 장벽을 느끼는 이들도 참여하게 했다. <노란봉투 캠페인> 외 참여한 관련 활동분야를 보면, '캠페인/서명활동'이 전체 응답수 283건 중 124건(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체 기부 또는 회원가입(24.0%)' '집회 참여(22.0%)', '노조 활동(10.2%)' 순으로 나타났다. 연대행위라고 생각되는 '집회 참여'가 중 3번째 순위이며,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노조활동에 가장 적게 참여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기존의 조직적인 연대방식이 아니라 '캠페인/서명', '기부'와 같이 개인화된 연대방식을 선호한다. 연령, 교육, 경제적 수준별로 교차분석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캠페인/서명 활동은 20대 이하, 전문대 이하, 하층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았으며 관련 단체 기부 및 회원가입은 30대, 대학원 이상, 하층집단이 집회참여는 50대 이상, 4년제출, 상층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참여가 많았다.

3) 제도화된 정치·연대에 대한 회의

과거에는 흔히 연대행위를 떠올릴 때면 어떤 구체화된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에 소속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집회에서 사용하는 투쟁적 성격의 구호에 거부감과 거리감을 느끼며, 사회운동이나 조직으로서의 연대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었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모인 대중은 운동권의 깃발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정치세력이나 운동단체도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이승욱, 2015). 특히 <노란봉투 캠페인> 이전에 기존의 연대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중 '지나치게 정치적이어서'란 응답, 즉 기존의 조직화된 연대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20대 이하 집단 내에서 높은 비율(16.7%)로 나타난 점은 기존의 연대방식이 바뀔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기존의 정치세력, 운동단체와 같은 제도권 정치가 새로운 가치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함에 따른 회의는 하위정치가 활성화되게 만들었다. 시민사회 또는 개인 수준에서의 운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집회가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특정집단이나 정치인 즉 정치세력이 집회에서 다루고 있던 사회문

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조직적 연대활동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에 더욱 참여하게 되었다.

집회가 특정 이익집단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집회에 나가서 후회했던 거 같아 특정 정치인이 나와서 나, 선 거 나간다고 광고를 하고 ... 그런 걸 겪고 나서 되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이었는데 이 추운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 잘 나가지는 않는데... - 기부자 C

언론 등에 비취지는 모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조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신뢰도는 사람들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가 아닌 다른 방식을 찾도록 한다. 기부자 C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월급쟁이' 또는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으며, 노동자는 빨간 띠를 두르고 파업을 하는 불편한 존재라고 표현하며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편견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 계급으로 규정짓고 있다.

노동이라는 말... 제가 노동... 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었을 거 같아요. 노동이란 말도 들으면 우리 남편도 월급 받는 사람이지만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고 월급쟁이... 회사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노동자는 일단 빨간 띠를 두르는 거고 파업하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잃어갔을 때 나중에 그 파급효과가 나한테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거죠. - 기부자 A

이처럼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노동문제가 자신의 일이 아닌 전혀 다른 계급이나

집단의 문제라고 구분 짓게 하거나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더 다른 시민사회 혹은 개인수준에서의 연대방식을 찾게 된다.

4)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의 연대

연대방식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들이 변화되어 왔다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 사회화(tertiarization)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방식, 노사관계, 가족생활, 여가활동 등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남기범, 2016). 서비스 사회화는 중소기업사업장의 비중 증대에 따른 서비스노동자들의 조직력 저하, 비정규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산화, 파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서비스사회로의 이행은 일차리의 계층화, 이동의 심화,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의 개인화의 심화를 수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대 역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노동자들을 개별화, 분산화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노동과 일상생활에서 분산된 개인들로서 개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분산된 대중은 동일한 집단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간의 결합, 전통적인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형성되어 온 조직된 노동자, 단체를 중심의 조직화된 연대 기반의 연대에 참여하기 어렵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이 남긴 소셜댓글과 기부에 참여하며 보내온 편지에서도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은 노동자라는 공통된 이해관계와 계급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전업주부, 그리고 해외거주자와 같이 국내의 어떠한 조직된 형태의 연대에 참여할 수 없는 분산된 대중들의 참여 역시 많았다.

표 4. 분산된 대중(비정규직, 전업주부 등)의 기부참여 편지

비정규직
저는 15년차 방송작가입니다. 비정규직의 설움 15년이죠.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보다 행복하게 일 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며 마음 하나 보탭니다.

전업주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양, 과천, 의왕, 군포에 사는 엄마들의 모임입니다. (생략) 저희는 전업주부들이고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들과 살아가고 있기에 이 노란봉투의 소중함을 매달 느끼며 감사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가정이 걱정되고 또 그 가정의 아이들이 염려되어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해외거주자
35년 전 50달러를 손에 들고서 이 땅에 건너와 아내를 만나고 세 아이를 키워가며 거의 10년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살림을 일구었지요. 노동자들의 유일한 권리인 단체교섭과 파업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사회가 내 조국이라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오래전부터 노란봉투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백수휴학생이기에 마음에만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시사인에서 4700원씩 10명의 학생이 모여 노란봉투를 전달한 것을 보고 저도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은 고용관계를 유연하게 만들어 피고용자들 간의 경쟁을 강화했다.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계급, 지역, 세대)에 근거한 경쟁은 개인적인 경쟁으로 변화되었으며(전상진, 2009),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 집회나 구조화된 집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개인화되고 분산된 대중은 기존의 연대방식인 집회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여에 대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갖게 된다. 심층인터뷰의 참여자들도 기존의 연대방식에 참여하는 것에 경제적, 시간적 부담감은 물론 심리적 부담감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제가 그 이후에 그 소식을 계속 듣게 되는 건 일 상에서 굉장히 감정적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없기때문에 폐북 좋아요 누르는거 밖에 없는 거예요. ...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그 짐을 장기간 짊어지고 가요. 내가 이슈를 알았을 때 그때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좋은 사회참여라고 생각해요. -기부자 A

인터넷 활용과 소셜미디어가 확대되면서 느슨한 그룹들 간의 공유의 가치와 활동이 더욱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페이스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연대의 새로운 방식에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연대행위에 익숙해져 있던 대중들은 집회와 같은 조직적인 연대행위가 아닌 기부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게 된다.

연대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옛

날 같으면 발 벗고 나서 같이 싸우러 간다거나 이런 게 가장 포멀한 연대의 행위라고 했다면 요즘은 SNS가 많아지면서 SNS를 통해서 자기주장이나 표현을 하잖아요. ... 꼭 돈만 낸다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소비를 할 때도 그런 것과 쌍용자동차는 안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대를 하거나 사회를 바꾸는 방식은 다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각되지 않거나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동이란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기부자 B

5.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의 기부

1) 수평적 관계의 기부행위

연대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피상적인 연민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직, 시혜적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실현된다.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 참여자들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를 수직적(시혜적) 관계인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 아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료’로 바라보고 있었다. 설문응답자의 74.5%가 해고노동자를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라고 생각했으며, 16.1%는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했다. 반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은 5%에 불과했다.

서로가 비슷한 경험 또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할 때, 공통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며 수평적 관계 속에서 연대한다.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를 한 편지 기부자 1은 IMF관리체제 시기에 해고통보를 받았던 경험으로 해고노동자의 심정과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있다.

해고통보를 받고 IMF 100일 파업으로 보냈던 사십대입니다.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그 회사를 나와서 다른 직장생활 후 수년전부터는 조그마한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상처, 굴욕감, 생활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회사에 대한 배신감 등은 문득문득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물며 손배소와 가압류에 시달리는 분들임에랴! 싶습니다. - 편지 기부자

기부자 G는 확장시절에 IMF 시기를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으로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으며, 해고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언젠가는 자신도 겪을 수 있는 일이며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같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에 대한 관점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N	%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	17	5.0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	55	16.1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료	254	74.5
기타 ‘공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 ‘외면해서는 안될 공동체 구성원’, 무응답	12 3	3.5 0.9
전체	341	100.0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 지금 더 절실하게 느껴요. 이번에 노동개혁이란 말로... 나도 언젠가 저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내 일이 아니니깐 나는 괜찮으니깐 넘어가는 거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사회적으로 보험이나 연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 이 일은 곧 제 일이라고 느껴졌던 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정 이런 것들이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기억들도 같이 났던 거 같아요. ... IMF때 우리 집이라던가. 꼭 같은 건 아니지만... - 기부자 E

수평적 관계는 비슷한 경험이 없더라도, 동일한 정체성, 계급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 기부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규정하며,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즉 해고노동자들과 동일한 노동자라는 계급적 정체성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곧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기부참여를 했다.

(노란봉투캠페인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에 어쨌든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 사측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물론 나는 회계업무를 하고 관리부서기 때문에 가끔 회사입장이 되긴 하더라도... 하지만 전체입장에서 나는 노동자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 기부자 C

동일한 계급 정체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확장된다. 현재 기업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있는 자신 혹은 가족이 노동자로서 해고노동자와 동일한 계급정체성을 가지며 그들의 고통을 바로 자신 또는 가족들에게도 해당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기부참여를 한다. 기부자는 해고노

동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신, 가족을 넘어서서 고용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래서 현재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해고절차나 제도를 바꿔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그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관심으로서 참여했음을 밝혔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고용관계 안에서 내가 고용된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거고 해고의 과정이나 해고절차나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회적으로 관심으로 보이지 않으면 더욱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 기부자 B

해고노동자가 겪고 있는 현실을 동일한 정체성, 계급을 가지고 있는 자신 또는 주변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 모두에게 확장하여 인식함으로써 공동의 이해관계가 형성되며 수평적 관계의 연대로서 기부참여를 하게 된다.

2) 공동의 책임감

연대는 공동의 책임감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책무를 요구하며, 일반적인 사회구성원 모두가 '묵묵히 지켜가는 규범체계'가 존재한다. 그 안에서는 서로가 책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들어있다. 이러한 사회적 책무, 책임의 바탕 감정은 부채의식과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며 이와 같은 연결점에는 타자 성찰, 즉 공감이 놓여있다(유찬기·남기범, 2018). 공감의 타자 성찰을 통해 타자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조정한다. 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은 타자 성찰의 공감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이렇게 형성된 감정은 개인들을 공동체에 정착시키는 사회적 연대의 기능을 담당한다(김왕배,

2013). 심층인터뷰 참가자들도 오랫동안 해고노동자들의 현실을 방기한 것에 대한 부채의식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공감은 타자를 내면화하고 내면화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생겨나는 부채의식과 죄책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더욱더 느끼고 서로가 연대하게끔 한다.

쌍차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었고 쌍차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그냥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충실히 살 뿐이었는데 뭔가 쌍차 노동자들에게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 노동의 문제나 해고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문제는 아니고 전 사회적으로 특히 노동자로 산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쌍차 노동자들을 위한 집회를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채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 기부자 A

평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노동자 문제에서는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채의식 또한 있다.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알고 있으며 과거 집회 참여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했지만, 자녀양육과 직장 생활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해고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채감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부채감 같은 거였던 거 같아요... 말로서 뭔가 힘든 사람을 도와야지 이야기는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산참사라던가 사회에서 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데 늘 이야기 하죠 거꾸로 내가 뭘 했냐고 했을 때 정작 한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고... - 기부자 E

공동체는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요구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존재한다. <노란봉투 캠페인>에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내면화하면서 오는 자기반성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대한 부채감, 그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게 드러난다.

3) 사회자본의 형성

사회자본은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퍼트남저, 정승현 옮김, 2009). 이는 사회적 집단에서 형성되며, 다른 집단 또는 개인을 신뢰하고 얼마나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 상호간의 이득을 주게 되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송경재, 2013).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적, 조직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을 상호신뢰와 호혜성, 협력적 네트워크, 소속감, 사회적 연계망 등 네 차원으로 분류하고 기부참여를 하면서 사회자본이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사회자본의 구성항목 중에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평균 2.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속감(2.77)', '사회적 연계망(2.70)', '상호신뢰/호혜성(2.46)'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신뢰/호혜성'은 30대, 전문대이하, 하층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적 네트워크'와 '소속감', '사회적 연계망'

표 6. 사회자본 형성 측정 문항과 평균값

구분	문항	평균값*
상호신뢰/호혜성	내가 해고노동자와 같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누군가 도와줄 것이라 믿음이 생겼다.	2.46
협력적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힘을 모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78
소속감	내가 집단/사회에 소속된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2.77
사회적 연계망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2.70

* 4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

은 50대 이상, 대학원 재학 이상, 중층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지위에 있을수록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를 서로 돕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비슷한 어려움이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집단은 기부참여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이해하고,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에 바탕을 둔 교환유형이다. 호혜의 관계에서 자원이 흐르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사회관계가 가하는 도덕적 힘 때문이다. 호혜성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로 보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를 ‘신뢰’라고 한다(최종렬, 2004).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자들도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 상대방이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16.1%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를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인 30-4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고노동자를 ‘현재는 도움의 대상이나, 잠재적으로는 도와주는 주체’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신뢰는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참여자들, 나아가 불특정 다수로 확장되었다.

(배춘환씨의 편지)진짜 짧은 편지였는데 너무 울컥한 거예요 혼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세상 이... 이렇게 나 혼자만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데 힘을 보태면서...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그런데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힘든 일이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기부자 A

개인화되고 분산됨에 따라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협력적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한 사회자본이다.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음을 느끼며, 소속 구성원들이 힘을 모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다니... 우리 사회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싶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해고자들이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거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파업만 하면 생기는 손배소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기엔 작은 금액이지만)될 수도 있다는걸 보여주고도 싶고... - 기부자 F

4) 갈등의 해결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저항과 요구들을 민주적으로 통합해 내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공존을 지향하는 포용적인 연대가 형성된다(홍윤기, 2010). <노란봉투 캠페인>이 다루고 있는 해고노동자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 338명 중 250명(74.0%)는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을 ‘이해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답

했다.

참여요인별 기대사항을 교차분석 한 결과, 참여요인이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인 집단은 노동자 및 가족지원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인 집단은 사회적 연대확산과 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분위기 형성을, ‘해고노동자에 대한 연민’인 집단은 법률개선을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기대했다. 이는 실제로 ‘공동체 의식’으로서 기부참여를 한 집단은 기부가 물질적인 자원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대로서 가치의

표 7. 갈등해결 방식

내용	N	%
이해당사자 외 다른 사람들도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	250	74.0
갈등 주요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74	21.9
기타: 근본적 체제변혁, 정부가 나서야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 이해당사자간 해결해야 하지만 사회구성원의 관심 필요	9	2.7
정부 주도 개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5	1.5
전체	338	100.0

* N=338, 무응답 3명은 결측 처리

표 8. 참여요인별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노란봉투 캠페인 참여 시 기대		해고노동자의 경제/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연민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		노동자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미안함	
		N	%	N	%	N	%	N	%
노동자, 가족지원	기대하지 않았다	6	5	0	0	12	6	1	4
	기대했다	114	95	8	100	177	94	23	96
합계		120	100	8	100	189	100	24	100
사회 분위기	기대하지 않았다	28	23	3	38	22	12	4	17
	기대했다	92	77	5	63	167	88	20	83
합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0
사회적 연대확산	기대하지 않았다	13	11	1	13	17	9	4	17
	기대했다	107	89	7	88	172	91	20	83
합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0
법률개선	기대하지 않았다	32	27	3	38	53	28	9	38
	기대했다	88	73	5	63	136	72	15	63
합계		120	100	8	101	189	100	24	101

실현이자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참여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부참여자들은 기부행위 자체가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연대의 의미다. 포기하지 않고 투쟁 하고있는 해고노동자들이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해고노동자들에게 그들이 고립되지 않았음을 알리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판단하고 참여했다.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같은 재정적 지원보다는 부당한 해고와 노동자들의 과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와 연대로서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해고자들이 사회적인 불합리함에 맞서는 거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고 싶었어요.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전 노란봉투이고, 파업만 하면 생기는 손배소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결...되기엔 작은 금액이지만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도 싶고... - 기부자 F

기부참여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해고와 손배소 이슈 자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다.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기부참여를 통해 법제도 개선까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런 점이 다른 기부행위와의 차이점이다.

결연에 대해서... 할 때는... 그 상태를 그 아이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을... 그렇지만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노란봉투는 이슈가 분명 하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만큼 최소한 그 이슈만큼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지요. - 기부자 B

〈노란봉투 캠페인〉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와 가압류라는 명확한 이슈와 갈등을 다루고 있다. 그에 따라 기부참여자들은 이러한 갈등을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해결방식에는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도 있지만, 법률개선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해결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도 포함되어 있었다.

6. 결론

기부는 공동체를 향한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 안정과 결속을 위한 중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자원으로서 강조되었고 그에 따라 시혜적, 자선적 기부행위만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운동, 사회참여 성격의 기부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동기와 분야의 기부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란봉투 캠페인〉의 기부참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연대의 성격을 분석하고, 그 변화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캠페인의 시작과 진행과정을 통해 특징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람들이 기존의 조직화된 연대활동이 아닌 기부참여 방식으로 연대를 하게 된 동인을 살펴보았다. 셋째, 기부참여에 있어서 사회적 연대의 특징으로 규정한 ‘수평적 관계’, ‘공동의 책임의식’, ‘사회자본 형성’, ‘갈등해결지향’ 여부를 분석하여 기부참여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임을 분석했다.

〈노란봉투 캠페인〉은 모금을 하는 비영리단체

가 아닌 시민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제안은 해고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제도가 부당하다는 생각의 표현이자, 해고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함이었다. 캠페인의 시작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물질적 지원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아름다운재단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과 관련 없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며 월급봉투와 노란봉투 이미지를 캠페인에 활용하는 등 동정심보다는 공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부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부참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적 책임감’이었으며 ‘동정심’은 가장 적은 영향을 미친 요인이었다. 이는 기존 기부의 주요 동기가 ‘동정심’인 것과는 차별적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 즉 사회적 연대와 공감으로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부참여자들은 기부대상자인 해고노동자들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동료’로서 바라보고 수평적 관계에서 기부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는 기부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수혜적인 기부와는 다른 형태이다.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했거나 혹은 해고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자신 또는 주위 사람들로 확장하고 내면화함으로써 동질적 계급으로 받아들이며 ‘수평적 관계’에서 기부가 이뤄졌다. 해고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내면화는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의 책임감을 갖게 하며,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조정하게 한다. 기부참여의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이었으며 동시에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부참여를 통해 사회적 구성원 역할수행으로 인한 소속감뿐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을

발견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개인화되고 분산되어 더욱 고립된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기부를 통해 타인을 신뢰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법률개선을 모금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던 만큼 기부참여자들은 해고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갈등의 해결 방식 역시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참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의 의미로 기부참여를 하였다.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으나 기존의 구조화된 연대의 주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특히 구조화된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시간적 제약 등으로 개인적으로 쉽게 접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부’를 연대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부의 의미가 기존의 자선적 의미, 빈곤한 자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서 사회적 연대의 의미, 즉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물질의 풍요가 삶의 가치로 작용할 수 없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기부 역시 합리적 기능주의를 넘어서 보다 심미적 인간적 욕구가 충족과 인간 정체와 새로운 공동체 회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남기범, 2018; 지호철·이승철, 2018).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기부가 사회적 연대로서의 행위로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하나의 시발점으로는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를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부에 대한 세대별 차이, 특히 젊은 세대의 기부행위에 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연대와 공감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 연구가 요구된다.

주

- 1) <노란봉투 캠페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비 지원 및 법률개선 활동을 위해 2014년 2월-5월 아름다운재단에서 진행한 모금 캠페인이다. 시민 배춘환씨가 언론사(시사인)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에게 가해진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십시일반을 제안하며 4만7천원을 보내 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아름다운재단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이라는 모금 캠페인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가수 이효리씨의 참여로 대중적 관심이 확산되었고, 모금캠페인이 진행되는 112일동안 총 47,547명이 참여하여, 1,468,741,745원이 모금되었다.
- 2) 쌍용자동차의 줄임말로 쌍용자동차 노동자, 관련 집회 및 이슈를 '쌍차'라고 관용적으로 줄임말로 사용된다.

참고문헌

강수택, 2006a, “사회적 연대 담론의 구조와 시민문화,” 한국사회학 40(6), pp.25-55.

강수택, 2006b, “시민적 연대의 의미 구조: 다원화된 현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론,” 사회와 이론 8, pp. 105-148.

강철희 외, 2011, “기부영역 선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 사회복지영역과 비사회복지영역 및 비기부 집단의 비교,” 사회복지정책 38(1), pp.247-276.

김옥, 2010, “촛불시위와 한국 시위문화의 변동-거시적 변화에 대한 미시적 설명,” 한국정당학회보 9(2), pp.33-59.

김왕배, 2013, “도덕감정:부채의식과 감사, 죄책감의 연대,” 사회와 이론 23, pp.135-172.

김원식, 2010, “한국사회 갈등구조와 민주적 연대,” 사회와 철학 19, pp.129-154.

김형용, 2013, “포용적 사회와 나눔 문화의 현실 -소비주의 나눔에 대한 비판적 해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pp.87-113.

남기범, 2016, “‘선택과 집중’의 종언: 포스트클러스터 지역산업정책의 논거와 방향,”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4), pp.764-781.

남기범, 2018,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논의와 서울의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53(4), pp.469-484.

서유석, 2010, “연대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 시대와 철학 21(3), pp.453-483.

송경재, 2013, “사회적 자본과 한국의 시민참여-관습적 비관습적 참여와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2(2), pp.221-244.

송호근·유형근, 2010, “한국 노동자의 계급의식 결정요인: 울산 지역의 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87, pp.237-262.

아름다운재단, 2014, Giving Korea, 아름다운북.

예종석, 2010,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나눔문화의 정착방안, 경기개발연구원.

유찬기·남기범, 2018, “사회과학의 공감연구 동향과 특성,” 문화콘텐츠연구 13(2), pp.75-100.

이승욱, 2015, 마음의 연대, 도서출판 레드우드.

이승훈, 2015,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2), pp.199-235.

이현우 외, 2011,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 경기연구원.

장은영, 2009, 개인기부자의 기부의향 결정변인에 관한 연구: 연령집단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pp.5-31.

정정호·김미희·이상철·안효금, 2007,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욕구조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호철·이승철, 2018, “베트남 커피산업의 지속가능성 지표 구축과 공유가치창출의 한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pp.289-302.

최성환(윤김), 2008,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자본 -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38(6), pp.97-132.

퍼트넘 저, 정승현 옮김, 2009, 나홀로 블링, 페이퍼로드.

한준 외, 2014, “사회적 관계의 양면성과 삶의 만족,” 한국사회학 48(5), pp.1-24.

홍윤기, 2010, “연대와 사회결속: 연대의 개념, 그 규범화의 형성과 전망,” 시민과세계 17, pp.45-64.

- Ostrower, F., 1995, *Why the Wealthy Give: The Culture of Elite Philanthrop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yton, R. L., 1989, *Philanthropic Value, Philanthropic Giving*, Oxford University Press.
- Sarge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pp.215-238.
- Segal, E.A., Wagaman, M. and Gerdes, K.E., 2012. "Developing the social empathy index: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dvances in Social Work* 13(3), p.541-560.
- Stewart, J. (ed.), 1995, *Bridges Not Walls: A Book abou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New York: McGraw-Hill.
- Urbain, C., Gonzalez, C. and Le Gall-Ely, M., 2013, "What does the future hold for giving?: an approach using the social representations of Generation 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 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8(3), pp.159-171.
- Wispe, L. G., 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 28, pp.1-19.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2015년 9-10월 접속]
- 아름다운재단 공식 블로그 <http://bfpeople.tistory.com> [2015년 9-10월 접속]
- 소셜펀치 <https://www.socialfunch.org>[2015년 9-10월 접속]
- 교신: 남기범, 0250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전화: 02-6490-2738, 이메일: nahm@uos.ac.kr
- Correspondence: Kee-Bom Nahm,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02504 Korea, Tel: 82-2-6490-2738, E-mail: nahm@uos.ac.kr
- 최초투고일 2019년 5월 23일
수정일 2019년 6월 12일
최종접수일 2019년 6월 18일